



'아바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타이탄'



# 광주도 '3D 상영관' 대세

### '아바타' 흥행 후 속속 도입 ... CGV 아성에 메가박스·콜롬버스시네마·씨너스 가세

'3D 상영관 광주 상륙 붐블.' 1천 300만명을 동원하며 '괴물'을 제치고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3D 영화 '아바타' 열풍으로 지역에도 3D 상영관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아바타'가 개봉했던 지난해말 당시 광주의 3D 상영관은 CGV 광주와 롯데시네마 광주 등 2개 스크린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메가박스 광주가 3D 영화 상영을 시작했고, 1일부터 콜롬버스 시네마(하남점·상무점)와 씨너스 전대점이 가세했다. ▲'아바타' 3D 관객 일반 스크린 추월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는 3D 상영관 개관에 불을 붙였다. CGV 광주터미널의 경우 '아바타'를 관람한 총관객수는 20만 7천700명. 이 가운데 일반 스크린 관객수는 2만 4천798명에 머물렀고 3D 관객수는 18만 3천명에 달했다. 특히

아이맥스 3D의 경우 11만 2천명이 다녀갔고, 주말 티켓의 경우 예약 없이도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2월 개봉작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역시 3D가 강세였다. 아이맥스 3D 관람객이 1만 6천520명, 일반 상영관 관객은 6천773명으로 티켓 가격이 두배인 아이맥스 3D 영화관의 관객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 2월 뒤늦게 3D 시설을 갖춘 메가박스 광주점도 3D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경우 3D 관객이 3천703명, 일반 스크린이 3천 678명이었다. 현재 돌비 시스템을 렌탈해 사용 중인 메가박스 광주는 4월중 새로운 3D 상영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스크린도 교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3D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D 스크린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

응이 높아 기존 극장들도 3D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예정된 3D 영화만 해도 1일 개봉한 '타이탄'을 비롯해 '드래곤 길들이기', '슈렉 포에버' 등 줄줄이 대기중이어서 개관을 서둘렀다. 당초 내년쯤으로 3D 스크린 도입을 계획했던 콜롬버스 시네마는 계획을 변경, 1일부터 3D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남점의 경우 객석수가 가장 많은 10관(250석)을, 상무점은 6관(200석)을 3D 상영관으로 만들었다. 씨너스 전대도 소니의 초고화질 디지털 영사기인 4K 프로젝터를 도입, 1일부터 3D 상영을 시작했고 무등시네마 역시 상반기 중 3D 시스템 구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D 전용 안경 2천원~10만원대 3D 상영관은 3D로 그래픽 처리돼 공간상의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영

상을 제공하는 상영방식을 말한다. 3D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3D 영사기와 서버가 필요하다. 3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영관은 관객 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3D 제작사와 계약하기도 한다. 3D 영화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전용 안경으로 2~3천원대에 10만까지 다양하다. 콜롬버스 시네마의 경우 1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안경을 구비, 분실 등을 우려해 자동 센서 감지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3D 상영관의 가격은 1만 3천원(최소 1만원, 조조 8천원)으로 일반 스크린의 8천원보다 비싸다. 호남 지역에 하나뿐인 CGV광주터미널의 3D 아이맥스관의 티켓 가격은 1만 6천원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디지털 예술의 진수 보여줄 것”

### 10일 개막 '디지털페스타' 주제전 이원일 감독 국내의 대표 미디어 작가 31명 작품 한자리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디지털페스타(DIGIFESTA)'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고, 광주에 디지털 예술의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1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하는 '디지털페스타'(10일~6월10일)의 주제전 감독인 이원일(49·스위스 BSI의 문화재단 큐레이터)씨가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감시와 통제 속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이이남, 손봉체, 이정록, 진시영씨 등 광주지역 작가와 오용석, 구자영, 하봉호, 토니 오슬러, 마오 사오흔 등 국내외 대표 미디어 작가 31명이 참여한다.

이 감독은 “서양 중심의 미디어 아트에 한국적인 요소를 비벼 넣



제자로 백씨의 짧은 시절 사진을 소재로 '포인트 오브 뷰(Point of view)'를 선보이는 토니 오슬러와 컴퓨터 회로 속에 도시 이미지를 삽입한 제이콥 네프라스 등을 소개했다.

그는 “소통과 저항, 진보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적인 가치를 디지털이라는 형식에 담아내는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전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앙대와 뉴욕대 미술대학원 출신으로 토털미술관, 갤러리 이즈,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을 거쳐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큐레이터로 활약했다.

또 2004년 폴란드 우치 비엔날레 초청 큐레이터,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전시회 초빙감독, 2006년 상하이 비엔날레 전시감독 등을 지냈다. 현재는 지난 1873년 설립된 스위스 금융사인 BSI의 문화재단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생활용품 자르고 비틀고 접고...

### 광주신세계갤러리 5일까지 정승 초대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5일까지 제10회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인 정승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자동차 부품, 의자, 서랍장 등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소재로 만든 다양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물건을 자르고, 비틀고, 접어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형시킨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창동 국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청계창작스튜디오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멀티탭'

## 광주시향 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혁명'

### 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 정기연주회가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줄 곡은 러시아 출신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5번 '혁명'이다. 모두 15곡의 교향곡을 작곡한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적 교향곡인 '혁명'은 '러시아 음악의 전통적 비극성과 극적 전개를 지닌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곡이다. 1937년 소비에트 혁명 20주년 기념일에 예쁘

니 트라빈스키 지휘로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초연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또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씨가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협주곡 제 2번 사단조 작품 53'을 협연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뤼베크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강씨는 하노버국제바이올린 콩쿠르 2위, 스위스 티보르 바르가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위 등에 입상했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학생 등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주미씨

## 김달진미술연구소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1' 발간

김달진미술연구소는 1850년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인들의 정보를 집대성한 미술자료집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I'을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320쪽 분량의 인명록에는 1850년 생인 한국화가 채용신부터 1960년생인 사석원까지 1850~1960년에 태어난 50세 이상의 작가 4천254명과

1970년 이전에 태어난 40세 이상의 비창작분야 인사 655명 등 미술인 4천909명의 출생지와 학력, 전시경력, 사회경력, 상훈, 현직 등 기초정보가 수록됐다. 또 기존의 미술연감과 인명록에서 누락했던 월북 미술인과 재외동포 미술인, 생몰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남·월북미술인, 행방불명된 미술인 등의 정보도 수록했다.



연구소측은 “우리 나라 근·현대 미술의 역사와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미술자료로서 미술정보의 보존과 미술문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깝고 편하고 '새로운 곳' 부동산 문민정사

#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명부모의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전통적인 묘지(현묘)를 대신하여,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이 있습니다. '남골당'은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입니다.
- '남골당'은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입니다. '남골당'은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입니다.
- '남골당'은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입니다. '남골당'은 '신명부모'의 묘지를 관리하는 '남골당'입니다.

문의: 228-0108, 010-5103-4904, 010-7179-0108

아이엘리시아

## 고급적 메뉴, 건강한 맛, 불려있는 서비스 (500석 침베)

- 총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12인

062)671-1199

필스퀘어 타미널 3층 CGV 빌